

## 1.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온 30년 2.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갈 30년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 두란노아버지학교의 태동과 그 엄청난 열매



2009년 나가랜드 아버지학교 1기 세족식(왼쪽), 2024년 강원지역리더십 간담회(오른쪽).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올해 창립 30주년이다. 경제적 책임만이 가장 역할이라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리느라 무너진 이 시대 아버지들의 성경적 권위와 역할,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목표로 설립된 두란노아버지학교는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던지고 있다. 지난 30년, 두란노아버지학교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쓰였다. 그 무뎌졌던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그 아름다운 구호를 가정에서 실현해냈다. <온누리신문>에서 그 눈부신 사명을 감당하는 두란노아버지학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그들이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2회에 걸쳐 조명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가정의 질서도 사라졌다. 밖으로 걸도는 아버지들의 방향도 이어졌다. 세상 문화에 취하고, 일과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성적 타락을 비롯한 일탈도 계속됐다. 그대로 두면 이 시대 아버지들이, 그들이 꾸린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준 빛이 바로 ‘두란노아버지학교’다. 이 시대 아버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경적 권위와 역할, 정체성을 되찾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두란노아버지학교가 했다. 이 놀라운 변화가 한마디 고백에서 시작됐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보석 같은 고백은 세대와 지역, 인종을 넘어 국내 74개 지부, 국외 78개 국가로 뻗어 나가고 있다.

## 고개 숙인 아버지들과 함께

1997년, 두란노아버지학교 초창기에 김경현 작가의 소설 <아버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며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번졌다.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 믿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들에게 무심했던 아버지들이 가정 밖으로 내몰렸다. 서늘역으로, 영등포역으로 내몰린 아버지들이 한톨이 아니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의 회복이 절실하고 또 절실했다. 그때 두란노아버지학교가 빛을 발했다.

2000년이였다. 공영방송 KBS의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제작팀이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연락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내몰리는 원인과 심각성,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자료를 구했다. 당시 김성복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장이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주면서 일산동

안교회에서 진행 중이던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취재해보라고 권유했다. 그 방송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 현장 영상이 20여 분 송출되었다. 남성 시청자가 주를 이루던 프로그램이었기에 영향력이 상당했다. 수많은 아버지가 참회와 회복의 눈물을 흘렸다. 전국 각지 교도소, 군대, 기업, 관공서, 학교 등지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열릴 때마다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렸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일회적인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와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도왔다.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가한 아버지들이 변하니 가족들도 변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고개 숙인 아버지들을 부둥켜안고 울고, 다시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가 가정에서 실현됐다.

##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SWIM, 전영수 이사장)가 지난 2017년부터 튀르키예로 피난 온 시리아 난민으로 구성된 현지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생계를 지원하고, 사역의 필요를 돕는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뜻하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매 맞는 아내와 가정의 불화’가 그것이었다.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SWIM)에서 이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현지 교회에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소개했다. 그렇게 2018년 튀르키예 현지 교회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열렸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오죽했으면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SWIM) 전영수 이사장은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난민선교와 중동선교에서 핵심적인 돌파구”라고 했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하 코로나19)이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위

기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년 반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땀팔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이라는 두란노아버지학교의 본질을 되새기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열어 더 많은 아버지와 마음을 나눴다. 지금은 다시 현장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열리고 있다. 특히 3040 젊은 세대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현지인 두란노아버지학교 3기를 수료한 위스셈 캄모우 형제의 간증이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임을 새삼 깨닫게 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나에게 계속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것인지 결단하도록 하는 인생의 기로가 되었습니다.”

##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남성들의 수도’

두란노아버지학교는 5주 과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아버지들의 성경적 권위와 역할,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그중에서 ‘조별 나눔’과 ‘전체 나눔’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어디서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이 시대 남성들이 ‘아버지’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모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수도’라고도 불리는 나눔 시간에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과 위로하고 울고 웃으며 ‘형제애’를 경험한다. 함께 ‘좋은 아버지’로 성장하는 희망을 품는다.

두란노아버지학교의 특별함은 섬기는 헌신자들이 ‘아버지’라는 점이다. 아버지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지위나 나이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로를 ‘형제님’이라 부르며 섬긴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버지로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길을 조명한다. 최근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한 형제는 함께 살을 나누면서 진짜 자기를 발견했다고 털어놓았다.

“아내와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좌아였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절망하고 있을 때 두란노아버지학교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다른 문제를 가진 형제님들과 삶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공감받기를 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아내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정도로 관계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문의: 02-2182-9100